



**BNK부산은행, 부산엑스포 기원 환경정화 봉사**

BNK부산은행은 지난 18일 2030 세계박람회 선정을 열을 앞두고 부산 유치를 기원하는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부산 지역 16개 구·군에서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봉사활동에는 500여명의 부산은행 지역봉사단이 참여해 부산시청 녹음광장을 비롯한 ▲감천문화마을 ▲영도 중리해변 ▲범일동 진성공원 등 부산 시민들의 발길이 잦은 대표 지역 곳곳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BNK부산은행



**금투협, 자선야구대회 성황... 유진투자증권 우승**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8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야구장에서 '제10회 금융투자협회장배 자선야구대회' 결승전과 폐막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세계 리그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1부인 금융리그에서는 '유진투자증권'이 첫 우승을 거머쥐었으며, '하나증권'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투자리그 우승은 '현대차증권', 준우승은 'SK증권'에게 돌아갔다. 성장리그에서는 'BNK투자증권'이 우승, '삼성증권'이 준우승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금융투자협회



**순천향대, 간호학과 개설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순천향대학교는 17일 교내 동아홀에서 '간호학과 개설 30주년 기념행사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간호학과 발전위원회, 총동문회, 학부·대학원생 등은 총 1억4000여만원의 발전기금을 내었다. 이번 행사는 'Achievement, Accelerating & Challenges'를 주제로 ▲기념식 ▲학술대회 ▲총동문의 밤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순천향대학교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사랑 듬뿍 김장 나눔' 행사 참여**

한림대학교 의료원은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이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공원에서 열린 '2023 사랑 듬뿍 김장 나눔' 행사에 참여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림대강남성심병원 나눔봉사단을 비롯해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지역 주민 등 봉사자 280여 명이 함께 했다. /한림대학교 의료원



**울산대, '공작기계 창의 공모전' 장관상 수상**

울산대학교는 기계자동차공학전공 학생들이 팀을 이뤄 제안한 아이디어가 한국 공작기계산업협회가 주최한 '제15회 대학생 공작기계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왼쪽부터) 이예은·정형준·전은재 지도교수·안재영·손동근 /울산대



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법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그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분담해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를 질 수 있다.

# '공동폭행죄' 판단 기준

3명이 같이 모여 1명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 1명은 그 폭행 장면을 촬영할 것을 계획했다. 실제로도 1명만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 나머지 2명은 그 자리에서 폭행장면을 촬영하거나 옆에서 가만히 지켜본 경우 위 3명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한 것으로 봐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의 죄를 물을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은 "1명만 폭행하고, 나머지 2명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의 실행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켜보거나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이 불과한 경우라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즉, 폭력행

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죄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려면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폭행의 범행을 해야 한다. 따라서 폭행 실행범과의 공모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나머지 한명이라도 그와 같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이상 공동으로 폭행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3명이 모여 범행을 계획하기는 했으나 처음부터 공동폭행이 아닌 단독폭행을 계획했고, 실제로 범죄현장에서도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실제 폭행을 저지른 1명에 대한

단독범행에 의한 폭행과 나머지 2명에 대한 폭행교사 또는 방조로 인한 죄책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위 3명에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성립하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죄의 죄책은 물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행을 공모하고 그 중 2인 이상이 범행 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렀어야 한다. 만약 이 사건에서 1명만 더 폭행에 가담했다면 나머지 공모자에게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했을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포뮬러 원 라스베이거스 그랑프리 2023(Formula 1 Las Vegas Grand Prix 2023)'에 설치된 삼성전자의 초대형 스마트LED 사인지의 모습. /삼성전자

## 삼성, 美 'F1 그랑프리' 빛냈다

스마트 LED 사인지 공급 태양 빛 아래서도 8000니트 밝기

'포뮬러 원 라스베이거스 그랑프리 2023(Formula 1 Las Vegas Grand Prix 2023)'에 삼성전자의 초대형 스마트LED 사인지가 걸렸다. 삼성전자는 16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네바다주에서 열리는 '포뮬러 원 라스베이거스 그랑프리 2023'에 삼성 스마트 LED 사인지를 공급했다. 이번 F1 그랑프리에는 41년만에 라스

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삼성전자는 경기장 전역에 설치한 디스플레이로 레이싱 영상을 송출했다. 특히 F1 경기장 빌딩 루프톱에 수평으로 설치한 총면적 약 2617㎡ 규모 로고 LED 사인지가 압권이었다. 약 147m에 달하는 축구 경기장보다 긴 크기에도 태양 빛 아래에서도 최대 밝기 8000니트, HDR10+ 기술을 탑재했다. 삼성전자가 그랑프리에 공급한 총 LED 모듈은 2만5000여개다.

/김서현 기자 seoh@

## CU, 장애인 위한 '착한 픽업' 서비스

BGF리테일, '착한 기술 앱' 제휴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사)착한기술융합사회의 '착한 기술 앱'과 제휴를 맺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픽업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설립된 착한기술융합사회(GTCS)는 취약계층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참여를 높이기 위해 융합기술 정책과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사단법인이다.

이들이 론칭한 착한 기술 앱은 매장 입구에 문턱이나 계단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이동장애가 있는 장애인, 정보 부족으로 소비 활동이 제한



CU가 착한 기술 앱과 제휴를 맺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픽업 서비스를 도입한다. /BGF리테일

된 시·청각 장애인 등이 매장 출입 없이도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픽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앱을 통해 원하는 상품을 사전 주문한 후 가까운 CU에서 '차 안 픽업' 또는 '매장 앞 픽업'을 신청하면 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LG전자, 한빛예술단 초청 연주회

임직원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모색

LG전자가 20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한빛예술단 초청 연주회를 연다.

한빛예술단은 전원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예술단으로, 지휘자와 악보 없이 단원들이 곡을 외우고 서로 호흡을 맞춰 관현악 합주를 펼친다. 이번 공연은 연주, 강의, 체험이 합쳐진 것으로 연주회 사이에 시각

장애인 전문가가 진행하는 강연이나 수화, 화면해설 등 체험을 곁들인다.

이번 초청 연주회는 LG사이언스파크 근무 임직원을 위해 마련됐다. LG전자는 지난 7월과 10월에도 경남 창원 LG스마트파크와 서초R&D캠퍼스에 한빛예술단을 초청해 임직원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겸한 연주회를 진행한 바 있다.

/김서현 기자

## 이우기 인하대 교수, 특허청장상 수상

생성형 AI 디퓨전 모델 다뤄

인하대학교는 이우기 산업경영공학과 교수(사진)가 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의 2023년도 하계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 발표자로 특허청장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우기 교수는 인하대 권민지 BK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 전공 대학원생, 김찬영·이건휘 산업경영공학과 학생과 함께 '딥러닝을 이용한 실시간 음성 복제 시스템을 주제의 논문으로 수상했다.

또한 '디퓨전 모델에서 오류 데이



터를 통한 생성 모델의 구조적 원리와 취약성(Unveiling the Generative Challenges of Diffusion Models through Corrupted Data)'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이번 12월 미국에서 열리는 NeurIPS 학술대회에 논문이 채택됐다. 이러한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중 가장 각광 받고있는 디퓨전 모델의 원천적 특징과 구조적 취약성을 다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현진 기자 ih@

### 인사

◆서울커뮤니케이션스 △본부장 안형준

### 부음

▲이병규(전 금융감독원 금융지도국장)씨 별세, 조용자씨 남편상, 이정규(현대해상 감사파트 수석)·이수연(워싱턴주립대 식품과학과 교수)씨 부친상, 류미경씨 시부상, 이영수(워싱턴주립대 생명공학과 교수)씨 장인상 = 19일 오전 5시,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

식장 특2호실, 발인 21일 정오. 02-2227-7500

▲김선남씨 별세, 김경민(매일경제신문 매경이코노미 차장)·김경표(마이엠수학학원)씨 부친상, 이미숙(진산중학교)·최현덕(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씨 시부상 = 18일 오후 8시 50분, 고려대 구로병원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21일 오전 6시 20분, 장지 전북 순창 선영. 02-857-0444

▲김석만씨 별세, 변창훈(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씨 장인상 = 18일 오전,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6호, 20일 오전 6시 40분, 청야공원, 053-819-1001